

日 지식인의 倫理불감증

文春·諸君誌「挺身隊 글」을 읽고

일본의 침략군이 우리 민족의 여성들을 중국으로 강제로 납치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한민족에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뼈저린 민족적 모멸감을 안겨 주고 인민의 양심을 자극하는 결코 저지할 수 없는 반인간적 범죄행위에 대해 모두가 공분을 금치 못한다. 더욱이 일제의 침략군이 조직적으로 타민족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고 유린하여 천만천만의 희생을 바쳤다는 데서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범죄행위의 죄악상징적 전형을 금할 수가 없다.

『신민』지배를 받았다는 원불한성 각인(가)도 안다. 그것은 魏차원의 문제일 것이다. 그것을 물건이나 돈의 외교교섭차원으로 끌어내려서 종족정신이 없다고 대답하는 한 민족에 대한 침략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



申一澈

전체주의 냄새 물씬

이 대답의 논지는 1965년의 위대한 배상금으로 일제가 한민족에게 저지른 모든 침략범죄에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가해자의 강변에 따라 이점에 관해서는 청구권의 외교교섭으로 일본의 책임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그네들의 말대로 일본의 침략범죄행위가 어찌 한번의 외교교섭으로 면죄될수있단 말인가. 그것으로 '훈'의 문제인 반역사적 반민족적 범죄가 청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한국을 비롯한 대륙침략에 대한 일본의 사죄는 한두번으로 끝날수 있는 성

과 미접들부분의 것이었다는 것을 잊었다. 중국과 일본만 시베리아출병후 일본군이 만주제도를 배리하여 나간것의 3분의1이 러시아연성과의 교섭으로 성에 걸린자 당당한 군이 현지연성의 트라블로피의 목적으로만 이 제도를 이렇게 대답자들 그불가피성을 변명한다고 해서 국의 「정신대」 강제모집의 책임가부위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대답에서 군사행동원활을 위해서 여성들을 전쟁노로 삼아도 무방하다는 전체주의 새를 느끼게 한다. 또 한가지의 명 「중국」은 아무는 모두 조선인 것 같은 캄페인을해서 사죄다 보이다 외치기 때문에 일본국민은 국의 억지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이며 厭韓 嫌韓이라는 기분은 점

걸이로謝罪속이로反韓부채질

侵略범죄 한번의 外交교섭으로 免責될수 있나

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화된 일본이 보편적 인간성의 준엄에도 눈뜨게 되기를 바라고 따라서 일본군국주의가 저지른 집단적 인간성도둑에 대해 진심에서 「훈」속에서 사죄하는 倫理的 明法에 따른기를 권고하는 것이다. 타민족침략에 대한 죄책감이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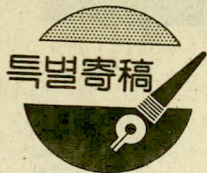
질 것도 아니고 뻔한 돈으로 마무리될수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 대답은 일본군의 작전수행상 중국과 일본제도가 불가피했다고 시사하는 다름과 같은 발언의 서도그윤리적 불감증배를 느끼게 한다. 즉 『중국』의 위안부제도가 존재했다는 것은 확실하며 그것이軍

거지는것이다라는 발상이다. 소수 일본연성이 징발되었다고 해서 국에 사죄하지않아도 된다는 억지논는 또 무엇인가. 그보다 더더욱 무서운 발상은 일본연성의 징발의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비인도적 태도다. 일본연성의 위안부징발에 대해서

人間조각점인 위안부

더욱이 일본의 위안부징발이 중국위안부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이 없다는 발언을 하여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일본정지 文藝春秋와 諸君에 실린 대담 「사과할수록 나빠지는 日韓關係」와 기고문 「중국위안부」, 北의 核이나 「속의 목소리」에서 우리

인의 아주 솔직한 내심을 엿보게 해준다. 걸이로 사죄를 되풀이하면 서속으로 反韓감정을 더욱 깊게 숨기는 일본인 특유의 이중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 외견상 고개를 끄덕였을뿐 내심으로는 한국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면을 폭로하고 있다.



는「국민총동원령」에 따라서 동원되
어 죄악시킬 필요가 없으며 문제시
하지 않으려는 데서 일본 한구석에
도사린 무서운 군주주의적인 율리
불감증을 느끼게 한다. 일본여성이
장발되었어도 일본여론은 조용한데
비해 한국여성의 장발에 대해서만
사죄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일본국
민의「厭韓」감정을 일으키는지 적의
의심된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발언에서 우
리국민을 불쾌하게 만들고 한일
양국민간에 이간 불이는 대륙은 한
국이 아직까지 일본을「宗主國」으로
생각하는지 모를것다는 부분이다.

新三우파의 말동간

『日韓조약을 다시 맺으려는 심산
인가.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는 국
가간의 약속이상의 것을 요구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설마 지금
까지도 일본이 중주국이라고 생각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이런 말
투는 우리의 국민감정을 건드려 과
거 식민지 지배의 우월감을 표시하
려는 일본 신구우파들의 말동간
이다. 일부일본의 신구우파적 의식
구조속에 도사린 이런 침략자적 우
월감이 진심의 사죄를 방해하고 한
일양국민간의 선린 우호관계에 금
이가게 하는 것이다. 속죄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양국관계가 개선된다는 국
제윤리의 초보를 이들에게 가르쳐
깨우치게 하는 일이 긴급하다 하
겠다.